

한 개인과 가문을 치유한 파수꾼 사도 요한 -복음으로 여는 요한이서-

창세기 45:4-5, 요한이서 1:1-2

정윤돈 목사님

* 창45:4-5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다

* 요1:1:1-2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존귀와 영광과 친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기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된 신분과 권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통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현장과 직장, 가정, 후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신 절대적인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불잡아야 할, 그리고 성취될 ‘레마’의 말씀을 불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사해 표어와 신앙 지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주보에 나온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이다.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장로님께서 써주신 글씨체가 참 멋지다. 이를 ‘참사랑 폰트’로 만들면 좋겠다.

(1)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 투터와 칼빈이 ‘오직 성경’을 외친 이유는 당시 천주교가 ‘오직 교회’였기 때문이다. 교황이 결정하면 성경에 없는 내용도 교리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교리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다. 천주교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머뭇거린다.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멘”이라고 답한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혼자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신천지나 어호와의 중인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단이 되었다.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바른 신학적 바탕 위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참 진리를 찾을 수 있다.

(2) 오직 복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마음, 삶, 인간관계까지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베드로도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복음이 완전히 체질될 때까지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참 치유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요셉을 보라.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완전히 치유된 상태였다.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것이 완전 복음의 상태다. 복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형제 간에 원수 될 뻔한 상황이 수십 가지나 있었다. 그러나 복음으로 용서하고 뛰어넘지 않으면 다 원수가 된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된다. 완전복음이 되어야 이를 뛰어넘고 침된 치유와 사랑을 할 수 있다.

(3) 오직 예수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도전해야 한다. 24시간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 25시의 응답을 받아 영원토록 남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 가진 자의 삶

(1) 복음 가진 사람은 항상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현장과 직장,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해야 한다. 과거에 잘했던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앞을 내다봐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준비되면 그 현장에서 빛이 될 수 있다. 남평계, 부모님평계, 직장평계 대지 말아야 한다. 내 자신의 평계와 이유를 대며 살면 안 된다. 모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하게

쓰임받아야 한다. 지금은 AI와 로봇이 우리 일을 도와주는 시대다.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효과를 발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2)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요새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지만, 2만, 3만까지 가고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방법은 237개 나라와 소통하고 그들을 살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국수주의로는 세계와 통할 수 없고 결국 망하게 된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만 강해지길 원하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른 나라와 백성을 살리려고 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 어떤 정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오직 성경에만 있는 지혜다. 이것이 바로 선교다. 모든 나라에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자기 나라 못지 않게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다. 우리 한국 곳곳에도 이런 선교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매일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3가지 습관 (원단메시지)

이번 협회 원단메시지에서 중요한 실천 사항이 나왔다.

첫째, 매일 아침을 최고의 축복 시간으로 만들어라 눈 뜨자마자 짜증 내지 말고, 호흡을 길게 하며 스트레칭하고 기도하라. 친양을 틀고 사위하면서도 기도하라. (단, 목욕탕에서 춤추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힘이 세도 미끄러지면 다친다.) 아침에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라.

둘째, 매일 낮을 최고의 축복 시간으로 만들어라 모든 만남과 일들을 미래를 위한 축복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번에 어학연수를 가는 렌트카들이 필리핀 대신 홍콩을 선택한 것도 그곳에 있는 모델적인 중직자와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 어디를 가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불평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있던 복도 달아난다.

셋째, 매일 밤을 최후의 작품(걸작)으로 만들어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계획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저녁에 근심, 걱정, 잡념을 가득 안고 유튜브만 보다가 잠들면 영적으로 죽는다. 말씀 안에서 문제를 재해석하고,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어야 내일 희망차게 일어날 수 있다.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들어가는 말씀 : 요셉과 사도 요한의 사역

요셉은 완전복음 안에서 참진리와 참사랑을 발견하여,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고 나아가 애굽과 전 세계를 살렸다. 사도 요한 역시 한 여제자(택하심을 받은 부녀)를 찾아가 그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여 지교회와 미션홈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로 확산된 것이다.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여러분도 20~30대 청년들과 문제 있는 가정들을 만나 함께라면 끊여 떡으며 포럼하고 살려내야 한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져서 그 행복을 전달하는 중인이 되어야 한다. 많은 응답 받고 이 행복을 계속 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문제가 클수록 감사하다. 내가 그 문제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며 사람들에게 놀란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도 별관이 되고 결국은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1. 요한이서 개요와 5가지 전도 기초

(1) 가장 짧지만 핵심이 담긴 서신 요한이서는 신약성경 중 분량이 가장 짧다 (총13절). 사도 요한이 한 ‘여제자(부녀)’와 그 가정에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도와 치유에 필요한 모든 핵심내용이 담겨 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 깊이와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이 짧은 편지에 농축되어 있다.

(2) 사도 요한과 요한이서 기록목적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며,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명자였다. 또한 그는 말씀의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이었다. 요한이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다. 둘째,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짓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해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요한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통하여 성경적인 다섯 가지 전도의 가장 기초를 보는 것이다.

(3)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5기초) 요한이서에는 성경적인 5가지 전도 기초가 다 들어 있다.

디리방 : 미가디락방에서 시작된 생명 건 ‘오직 예수’운동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임을 전하고 양육하는 만남이다.

팀시역 : 사도행전의 비둘처럼 항상 팀을 이뤄 현장을 움직이는 것이다.

미션홈 :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고 그 집에서 제자를 키우는 전략이다.

전문사역 : 이 편지의 수신자인 ‘부녀’는 루디아같은 여성 산업인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전문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교회 :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지교회 응답을 받은 모델이다.

일반 주석서나 신학교에서는 요한이서의 이런 전도적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전도현장을 이는 눈으로 보면 사역의 결론이 담긴 중요한 책이다.

2. 요한이서 1~6절 : 진리와 사랑

(1)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이라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이고, 다른 장로는 교회의 관리와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

신을 장로로 칭한 것은 전자의 장로로써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같은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2)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다. 여기서 ‘부녀’는 헬라어 원어로 ‘퀴리아(Kyria)’, 즉 ‘귀부인’을 뜻한다.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홀로 되었거나 남편이 믿지 않았을 수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력을 갖춘 여성산업인으로 보인다. 이 여인은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봉사, 성가대, 교사로 헌신하며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계시듯, 이 여인도 교회를 살뜰히 챙기는 현신자였다.

(3)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친분 때문이 아니라 ‘진리(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는 본래 남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나를 용서하셨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다. 내 인격이나 착한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의 근원이다. 이 말씀은 사랑의 근원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워드(With), 임마누엘(Immanuel), 원니스(Oneness)의 축복도 설명해 주고 있는 요점 말씀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참사랑이 되는 것이다. 빨리 안 되는 것 같지만 예배를 계속 참여하다보면 어느 날 참사랑의 체질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했다. 우리 교회에도 금요철야예배에 나와 친양하고 기도하는 청년 렘넌트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남은 자(Remnant)’가 되어야 한다. 부모 탓, 교회 탓, 목사님 탓하며 원망만 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

(5)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아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라고 권면한다. 6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여인이 믿음도 좋고 자녀도 잘 키웠지만, 아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나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교회에도 일은 잘하는데 꼭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특정 사람과는 안 맞는 분들이 있다. 공동체 안에는 꼭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완벽할 수 없으며, 어떤 부분은 펜션더라도 어떤 부분은 연약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윤리적, 도덕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개선하며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 언약을 불잡고 다른 사람을 헛하거나 비리보지 말고, 내가 먼저 요셉처럼 응답을 받으면 된다. 왜 남을 쳐다보는가? 여러분 자신이 주역이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죄고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사도 요한은 사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운 삶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을 권하고 있다. 24시간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절대목표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후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명자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현하는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3. 요한이서 7~11절 : 이단 경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1)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다. 당시 영지주의(Gnosticism)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다. 이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오늘날 한국에도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수많은 이단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영뚱한 교리로 사람을 미혹한다. 또 신비주의(능력, 치유증심), 복음 없는 축복증심(증생-성결 / 성령증민-신유-재림-축복(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교리)), 구원파(죄 사함민 강조하고 삶을 무시), 시한부 종말론 등도 복음을 왜곡한다.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깃발 들고 다니는 분들의 열정은 존경하지만, 때로는 그런 방식이 전도의 문을 막기도 한다. 성경적인 전도는 현장에서 조용히 제자를 찾고 그 사람에게 다리방하고 그 사람은 팀사역에서 증인이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운동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방법이다. 복음을 가지고 참된 신학을 가지고 참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9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왜 그랬을까? 과거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교회가 붙은 집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들과 논쟁하다가 말려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거짓의 아비 마귀”라 나와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거짓말을 조금만 해도 마음과 양심이 찔리는데 이들은 모든 행동이 다 거짓말이다.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아직 ‘영적 유치원생’ 같은 분들이 많다. “너 진짜 구원받았어?”, “너 죄 없다고 확신해?”라고 공격하면 금방 혼들린다. “어? 나 지난주에 죄 지었는데...”하며 불안해한다. 그래서 아예 접촉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물론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은 상관없다. 저는 예전에 서울역에서 전도하다가 여호와의 증인팀 10명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다. 그들이 끝까지 “지옥은 없다, 예수님이 하

나님이 아니다”라고 우기길래,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다. “그럼 당신들은 지옥 없다고 믿으니까 지옥이나 가세요” 그랬더니 인상을 쓰더라. 없는 지옥 가는데 왜 기분 나빠하나? (웃음) 이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굳이 섞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라는 사실, 성삼위일체, 영세 전의 예정,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가 머리로 이해되는가? 아니다. 하나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다. 세상 사람들은 끝없는 우주의 신비나 지구가 자전하는 자연법칙은 잘 믿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계시다는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의 성경구절 몇 가지만 깊이 목상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나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3)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9절)

마태복음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확정적으로 선포 한다. 성경은 이미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천주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야 하고 어느 정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사실 정해진 기준은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4. 요한이서 12절 : 대면 사역과 가문복음화

(1)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편지나 글(비대면)로는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다리방이고 팀사역이다. 직접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 만남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정에서는 미션홈이 되고 지역에서는 지교회가 되며, 직장에서는 전문 교회가 된다. 아마도 이 부녀(여제자)와 자녀들은 사도 요한의 방문과 지도를 통해, 훗날 그 지역을 살리는 지속적인 말씀 운동과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도 237나라와 5천 종족의 모든 사명자 가정에 이런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절대목표이다.

(2)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목표는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다. 여기서 ‘네 자매의 자녀들’이라면 촌수로 조카가 된다. 이 ‘부녀’는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매의 자녀들(조카)까지 쟁기고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에게도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난다.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야장아장 걷는 조카가 보고 싶어서 집에 뛰어가 놀이주곤 했다. 조카가 너무 예뻐서 누님에게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했더니, 누님이 시크하게 한마디 했다. “야, 니중에 너도 네 자식 낳아 봐라” 그때는 좀 섭섭했는데, 니중에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 누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 내 자식 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조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전도자, 선지자가 되시길 축원드린다.

(3)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편지를 받은 이 여인은 가문복음화를 이룬 사람이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역지들을 통해 말씀과 기도, 전도포럼이 소통되고 있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여 자기 조카들이 있는 곳에 다리방이 열리게 했고, 그 결과 조카들까지 사명자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한 여인의 혼신이 결국 자매와 조카들, 즉 가문 전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여러분도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하지 말고, 사촌, 친척, 친구들에게 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님이 여러분을 그 가문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결론

성경적인 5가지 전도운동(다리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나 본문의 여제자처럼 개인과 가정, 가문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죄고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